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사사기 6:11-24]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1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3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14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5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17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18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19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20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21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22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때때로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실제 생활에 계시는 하나님보다 훨씬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드온: 출애굽의 기적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광야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심지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위한 그분의 여러 이적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기드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수확물을 조금이라도 회수하려고 비밀리에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이상한 음성이 들립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기드온: 그의 믿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기는 다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에도 겉모습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그는 자신이 빛어나갈 사람만 보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기위해 부르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특별한 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모든 상황들이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티셔츠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결점과 실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는 임재를 통해 우리 안에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녀가 없는 99세 노인에게 오셔서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정하고 성급한 시몬에게 “너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처럼 우리가 확신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힘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준 힘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어떤 힘입니까? **“내가 널 보내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분의 힘으로 날 보내셨다는 것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그**

래 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너를 통해 내가 그것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힘이냐?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아,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아, 내가 너를 통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패배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낙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넣는 과정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함께하신다는 그 분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한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분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기드온: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적절한 질문입니다! 기드온은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 크고 내 능력은 보잘 것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기분을 느끼나요? 고린도후서 3:5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새번역) 사사기 6:16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왔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어떤 일을 수행하기에 얼마만큼 적절합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기드온의 의심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확신이 보장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17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사사기 6:17), 식사가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18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가까 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사기 6:18).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이 놀란 것도 당연합니다! 그가 두려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흥미진진하게 개입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 속에서도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고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실 수 있고 또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심지어 우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분의 은혜를 위한 완전한 길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 분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이상, 그 분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감동을 주십니다!